

*배우 최명수가 최근 이름을 최무성으로 바꿨다. 배우의 요청에 의해 최명수 대신 최무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왼쪽부터 배우 최무성, 이서 감독

〈사람을 찾습니다〉 이서 감독 & 배우 최무성 독립영화, 대학로 연극무대와 조우하다

독립영화 중 유례없이 원작 개봉에 앞서 대학로 연극무대로 옮겨간 작품이 있다. 이서 감독의 장편 데뷔작 〈사람을 찾습니다〉가 바로 그 작품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영화 속 주인공 원영을 연기한 배우 최무성이 연극의 연출을 맡았다는 것. 같은 작품으로 영화와 연극의 수장이 된 이서 감독과 배우 최무성을 만났다.

Chapter 1

영화와 연극, 매체의 활기찬 크로스오버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나?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가?

이서 감독(이하 이): 최무성 씨의 매니저와 아는 사이였다. 최무성 씨가 연극을 할 때마다 매니저가 나를 초대해줘서 이런 배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최무성 씨가 출연한 영화도 보게 됐다. 매니저가 좀 집요한 편이라 세뇌를 당한 것 같다.(웃음)

최무성(이하 최): 요즘은 집요하지 않다. 나는 배고픈데 매니저는 배가 불렀나 보다.(웃음)

이: 그렇게 계속 작품을 보면서 최무성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살피기 시작했다. 연기를 보면 볼수록 장점이 보이는 배우다. 특히 〈세븐 데이즈〉에서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보고 이 배우의 무게감을 제대로 느꼈다.

〈세븐 데이즈〉를 보고 〈사람을 찾습니다〉에 캐스팅해야겠다고 느낀 것인가?

이: 그때는 그런 생각까진 안했다.(웃음) 당시에는 시나리오도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으니까. 그 작품을 보면서 이 배우가 점점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에 함께 작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정도였다.

최: 이서 감독을 알게 된 건 몇 년 안 된다.

이: 정운철 감독님의 〈말아톤〉 조감독을 했었는데, 그때 감독님에게 코치 역할로 최무성 씨를 추천했다. 그때 두 번 정도 미팅을 가지면서 만난 것이 첫 인연이었다.

최: 그때 이 감독이 그 배역에 나를 확실히 밀

었어야 했다.(웃음)

이: 그때 코치 캐릭터를 연기했으면, 아마 스케줄이 넘쳐서 〈사람을 찾습니다〉에는 캐스팅 수락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웃음)

최: 에이 무슨 소리! 무조건 했다. 난 요즘도 독립 단편영화에 출연한다. 최근에는 30분 짜리 단편영화에도 출연했다. 시나리오가 좋다면 상업영화든, 독립영화든 출연한다는 주의다. 이서 감독이 하자고 하면 했을 거다. 그 정도 의리는 있다.(웃음)

최무성 씨의 어떤 매력 때문에 원영 역으로 캐스팅하게 됐나?

이: 내가 생각한 원영의 느낌과 어울렸기 때문이다. 최무성 씨가 그 역할에 응해준다면 영화에 큰 힘이 될 것 같았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시나리오를 줬는데 의외로 반응이 바로 왔다.

최: 캐릭터도 마음에 들고, 시나리오도 좋았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개봉 전에 이 영화를 원작으로 한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작품 연출은 최무성 씨가 직접 맡았는데, 어떤 계기로 연극까지 만들게 됐나?

최: 배우지만 가끔 연극 연출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화를 찍을 때 가끔 '이건 연극으로 올려도 괜찮겠다'고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내가 작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쓰지는 못한다. 직접 쓰지 못하니까 작품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다. 그러다가 <사람을 찾습니다>에 출연하면서 연극으로 만들기 괜찮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욕심이 생겨서 이서 감독에게 연극화를 제의했다. 고맙게도 선뜻 좋다고 이야기해줬다. 연극화하기에 내용 면에서 조금 무리가 있긴 했지만, 드라마 자체의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는 요소가 많았다. 나는 영화가 지닌 메시지들 중 권력에 관한 이야기를 조용하지만 강하게, 무대 위에서 보여주고 싶었다.

원작의 감독이 보는 연극은 어땠나?

이: 5번 정도 봤는데 볼 때마다 느낌이 독특했다. 영화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 있지만 연극이 가진 매력도 확실히 많다. 이 모든 과정이 나에게서 두 가지를 동시에 체험하는 독특한 경험이었다. 연극 <사람을 찾습니다>를 보면서 영화와 다르게 표현된 부분들을 살필 수 있었다. 그제 연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한데, 그런 다양한 느낌들을 접하면서 연출자로서 많이 배웠다.

연극을 연출하면서 이것만큼은 영화와 다르게 표현해야겠다고 신경 쓴 부분이 있나?

최: 각색자가 따로 있었다. <강적> <10억> 등에 출연한 김학선이라는 배우다. 연기도 하고 연출도 하고 글도 쓰는 친구다. 그 친구가 글을 쓸 때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알아서 잘 써왔더라. 영화에서는 비중이 작은 부분이었는데 연극에서는 원영의 부동산에 드나드는 친구들의 비중을 늘렸다. 그 친구들을 연극에서 형사 캐릭터로 바꿨다. 그러면서 공권력에 대한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담았다. 그런 것들은 아마 연극이라서 가능했던 부분일 것이다. 영화에서는 그런 설정을 일일이 다 챙기면 주제에서 멀어지고 관객들도 집중하기 힘들다. 하지만 연극에서는 영화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 군상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각색자가 잘 살려준 것 같다. 영화를 보면, 원영이 규남을 학대하기도 하지만 친구들도 원영을 학대하는 느낌이 있다. 영화 속 친구들이 연극에서는 형사가 되어 원영을 취조한다. 그런 부분은 연극이니까 가능하다. 비현실적

이기도 하지만 영화 속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슬쩍 비꼬아 풍자할 수 있었다.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나?

최: 연극은 영화와 달라서 앙상블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반응이 좋다. 처음엔 연극이 좀 세다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기 앙상블이 좋아졌고, 관객들의 반응도 좋아진 것 같다.

감독은 객석에서 연극을 봤기 때문에 반응을 더 쉽게 감지했을 텐데, 어땠나?

이: 아무래도 원작이 내 작품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신경이 쓰였다. 관객들의 반응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현장감 때문에 연극을 보러 오지 않다. 현장감 넘치는 무대 연기와 관객의 반응들이 좋았다. 하지만 드라마 도중 나오는 구타와 욕설 때문에 불편해 하는 분들도 있더라.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대학로의 꽤 많은 연극이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코미디 요소를 많이 첨가하지 않나. 하지만 이 작품은 대놓고 그런 요소를 배제하는 작품이라 관객들이 이미지보다는 의미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영화 개봉 전 연극이 먼저 무대에 올려졌다. 다음 공연은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는 건가?

최: 그렇다. 제일 좋은 건 영화 개봉과 함께 공연 일정을 잡는 것인데, 다소 아쉽다. 연극계에 '연극열전' 이란 프로그램이 있다. 여기에서 간혹 영화감독들이 연극 연출도 겸하는데 그것을 차용해 독립영화 감독들도 영화를 찍고 연극도 같이 연출하면 재밌을 것 같다.

이: 건물을 하나 사서 지하에서 연극을 하고 위에서 영화를 상영하면 좋지 않을까. (웃음)

최: 지금 내가 아는 분이 극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만든다고 하더라. 그거 정말 좋은 시스템인 것 같다.

연극 흥행은 어느 정도 되었나?

이: 연극을 본 관객들이 약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다. 소극장 무대에서 올린 연극인데, 흥행이 꽤 잘된 편이다.

최: 8월에 한 달 미만으로 공연했고,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공연을 했다. 두 번째 공연보다 첫 번째 공연 때 관객이 더 많았다. 물론 초대장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 관객들이 많았다.

이: 덕분에 줄지에 내가 대학로에 이름을 알리게 됐다. 이참에 연극 쪽으로 진출해야 하는 걸까? (웃음)



영화가지고 있는 매력도 있지만 연극이 가진 매력도 확실히 많다. 연극 <사람을 찾습니다>를 보면서 영화와 다르게 표현된 부분들을 살필 수 있었다.

최: 두 번째 공연을 한 극장이 조금 안쪽에 위치해 있고 날씨도 추워진데다 신종플루도 유행해서 그런지 관객이 다소 줄었다. 그래도 다 합해서 관객 수가 대략 2,500명은 넘는 것 같다.

이: 연극을 본 관객들만 영화를 보러 와도 큰 힘이 되겠다.

최: 연극을 본 관객중 영화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꽤 있었다. 아마 많이 보러 오실 거다.

이: 정말 그중 1/3만 와도 좋겠다.

Chapter 2

유일한 개런티 출연자, 훈련받은 캐스트들과 배우들이 모두 노 개런티로 촬영했다고 들었다. 3,500만 원의 영화 제작비 안에서 유일하게 개런티를 받아간 출연자가 개였다 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 극중 규남의 집에 커다란 개가 하나 있는데 그 개의 출연료가 30만 원이었다. 그 개는 실제 조련된 개라서 사람을 물거나 해치지 않는다. 영화에서 규남이 개와 같은 그릇에 사료를 함께 먹는 장면이 있다. 그런 장면에서 훈련을 받지 않은 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잘 훈련된 개를 쓰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런 훈련된 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독립영화라고 양해를 구하고 줄라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개를 출연시켰다. 결국 배우들도 못 받는 개런티를 유일하게 챙겨왔다. (웃음)

배우 입장에서 그럴 땐 어떤 느낌인가? 독립영화 출연의 대부분이 개런티가 없거나 성의 수준의 돈만 받고 출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말이다.

최: 못 받거나 최소로 받거나. <사람을 찾

습니다)의 경우 처음부터 노 개런티로 이야기
가 됐다. 어차피 돈보다는 시나리오를 보고
전체적인 작업에 대한 기대를 가졌으니까.

이: 어차피 몇 푼 안 되는 돈을 쥐봤자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작업을
깔끔하게 진행해서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게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
이 감독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이 아닐까 싶다.

최: 다만 몇 십만 원이라도 촬영과 관계된 사
람들을 다 챙기다 보면 진행비가 모자라 작
업이 더 힘들어진다. 차라리 개런티는 주지
못하더라도 작업을 깔끔하게 진행해서 좋은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바닥을 쳤을 때 나오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과 본능을 포착하고 싶다.

**개런티가 없는 대신 영화가 흥행이 잘 되어 수
익이 생기면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그만큼 행
겨주겠다고 했다던데.**

이: 이와 관련해서 모든 이들에게 계약서를
써줬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변할 수도 있
으니까 처음부터 계약서를 써야겠다고 생각
했다. 수익이 날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계약서를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고 배우들
과 스태프들에게 처음부터 개런티를 주지
않으려 했던 건 아니다. 투자를 받아서 찍기
위해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을 무작정 찾아다
녔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고 현실이 냉
정하다 보니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를 받
으러 다녀도 결과는 좋지 않았다. 돈을 선뜻
내놓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냥 돌아올 수
도 없었다. 배우들과 스태프들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게 30만 원, 50만 원 씩 받아왔
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내 자신이 한탄스럽

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면 세상에 못 파는 물건이 없겠
다는 생각도 들더라.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
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칼만 안 들었지 완
전 강도 아닌가.(웃음) 감독이면서 동시에
제작자이다 보니 생기는, 당연히 짊어져야
할 짐이었다.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나?

이: 내가 투자를 못 받아서 개런티를 지급하
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수익이 날 경우 지급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최: 그럼 우리 <워낭소리>처럼 흥행되면 다
함께 돈을 버는 건가?(웃음)

이: 그렇다.(웃음)

최: 그 계약서 빨리 찾아야겠다.

이서 감독이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다.

이: 양심적으로 일하기 위해 지금도 많이 노
력하고 있다. 지금 다음 작품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또 내
능력으로 극장을 한 군데 잡기도 했다. 배우
들과 스태프들의 도움에 대한 보답을 조금이
나마 하고 싶다. 그래야 내가 그들에게 덜 미
안해지는 것이다. 끝까지 감독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최: 감독이 다음에 더 나은 여건에서 좋은 작
품을 하게 되면, 그때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상황이 좋아지면
감독들도 유명 스타만 찾게 되지 않나. 그러
면 좋은 배우들을 다 놓치는 거다. 스타 감독
으로 거듭났을 때 예전에 같이 작업했던 좋
은 배우들을 불러 함께 작업했으면 좋겠다.
그럼 또 얼마나 열심히 하겠나? 돈 안 받고도
열심히 했는데, 돈 받으면 더 열심히 하지 않
겠는가.(웃음)

촬영하면서 어떤 순간이 제일 힘들었나?

이: 15일 동안 계속 촬영을 진행해서, 집중력
의 한계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쉬어야 하는
데 쉬지 못했다. 또 영화 장르가 스릴러였기
때문에 컷이 많았다. 컷과 컷 사이의 연결 상
태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힘들었
다. 더불어 무성 씨의 경우 첫 주연작이기 때
문에 나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했는데
촬영이 뻘뻘하다 보니 그러지 못했다. 아마
무성 씨도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많았을 것이
다.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최: 힘든 건 없었지만 부등산 촬영 장면, 그
러니까 다예와 전화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죽는 장면까지, 그 장면을 원 컷으로 찍어야
해서 감정 제어가 힘들었다. 그때 딱 하루를

제외하고 촬영 내내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
다. 주변에 워낙 헌신적으로 더 좋은 장면을
위해 노력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았다.

구타와 욕을 많이 해야 하는 연기였다. 상대 배 우와 호흡은 어땠나?

최: 맞는 연기보다 때리는 연기가 더 힘들다
는 것아나. 좀더 리얼한 연기를 위해 좀더 세
게 때려 달라는 주문이 있기도 했지만, 세계
때렸으면 정말 큰일 났을 것이다.

이: 이 영화가 길들이는 것과 길들임을 당하
는 관계에 대한 것 아닌가. 재미있는 게 실제
영화를 찍으면서 규남 씨(극중 인물도 규남)
를 감독인 내가 원하는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길들이려고 했다. 근데 알고 보니 어느 순간,
내가 그에게 길들임을 당하고 있었다. 2/3쯤
촬영이 진행됐을 때 그걸 느끼는 순간, 온몸
에 소름이 돋았다. 규남 씨의 경우 말수가 적
고 자신을 숨기는 편이어서 요구하는 대로
잘 따라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규
남 씨가 내 위에 있었다. 내가 길들임을 당한
것이다. 배우로서 이렇게 따라오라는 틀을
내가 분명 만들어 놔는데 알고 보니 규남 씨
가 배우로서 만들어 놔던 틀 안에 내가 있었
다.(웃음)

최: 영화 설정이 진짜 현실이 된 거네.

이: 순간 <영화는 영화다> 찍는 줄 알았
다.(웃음)

단편인 <비탈거미>도 그렇고 인간이 고립되고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 대해 관심이 많 은 것 같다.

이: 사람은 빵이 있고 마실 게 있으면 좀 나뉘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하지만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하면 본성이 나온다. 그 본성
이 나오는 지점을 좋아하는 것 같다. 편하게
있을 때는 어떤 일이든 자신이 할 수 있다. 하
지만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스위치를 켜는
일조차 하기 싫어서 서로에게 떠넘기려 하지 않
나. 이렇게 바닥을 쳤을 때 나오는 인간의 원
초적인 본성과 본능을 포착해 보고 싶다. 그
런 의미에서 나는 인간의 본성이 성선설이아
닌 성악설에 가깝다고 본다.

최: 그 부분에 있어서 난 감독하고 반대다.
원영을 보는 시각도 그렇다. 성악설에 가까
운 인간의 본성 이야기도 맞는 것이지만, 나
는 인간에게 선한 마음도 있다고 생각한다.
원영 역시 극 중 악하게만 갔으면 재미가 없
었을 것이다. 그는 악하기도 하지만, 선한 면
도 지닌 캐릭터다.

이: 그런 서로 다른 시각 때문에 무성 씨와 촬
영 중 충돌이 조금 있었다. 싸우고 그런 건 아

니지만 말이다.(웃음) 나는 원영의 감정을 좀 더 악하게 누르길 원했다. 하지만 무성 씨는 원영의 성격을 악하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밝게 가보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화 속에 그려진 원영은 나와 무성 씨가 주장했던 캐릭터의 중간 지점에 있게 됐다. 그 접합점이 어느 순간, 원영의 캐릭터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스럽게 그 접합 지점을 관망하면서 조율 해나갔다.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원영 캐릭터를 그렸다면, 관객들은 원영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최: 시나리오에도 원영은 그렇게 나쁜 남자가 아니었다. 내가 영화를 선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원영이 내연녀인 인애를 안 때렸다는 점이다. 규남을 대하는 원영의 폭력 성향만 보면, 분명 원영은 인애를 폭력적으로 대할 여지가 있다. 만약 원영이 인애를 때렸다면, 영화지만 소화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 원영은 아내에게도 폭력적이지 않다. 그는 늘 뭔가 자기 변명이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내가 연기한 <세븐 데이즈>의 정철진처럼 그렇게 완전히 못된 인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겉으로는 선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발톱이, 나는 정서적으로 더 무서워 보인다. 원영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 겉으로는 돈도 많고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규남을 구타해야만 하는, 그런 복잡다단한 폭력 성향이 있다.

최: 누군가는 폭력 성향으로만 비교해서 원영과 규남을 비슷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더라. 나는 오히려 원영보다는 규남이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지만 폭력적인 원영을 길들이려는 무서운 면이 있지 않나. 그런 규남과 비교하면 원영은 오히려 인간적이다.

영화감독이 되기 전에 직업군인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직과 현직 사이의 거리가 참 멀다. 영화감독이 된 계기와 과정이 궁금하다.

이: 내가 좀 확확 바뀌는 걸 좋아한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식당에서 그릇을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그 간극의 차이를 다소 즐기는 것 같다. 간극과 신분의 차이를 넘나들며 경험하는 것들 말이다. 또 그 간극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나 스스로 느끼는 것도 많다. 나 이 들고 멀쩡한 남자가 식당에서 그릇을 닦으니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들로부터 이상한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말이다.(웃음) 영화에도 그런 간극의 차이와 느낌들을 내 스타일로 가져가려고 한다.

주어진 체제에 잘 순응하면서도 그걸 못 참는 성격 같다.

이: 그렇다. 군대에 있을 때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군인 체질이라고 말했다. 7년간 군에 있었는데 다들 “너는 군대에 살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인생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과감히 군대를 나왔고, 영화감독의 길을 선택했다.

그럼 언제가 될지 모르는 어느 날, 영화감독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으로 업종 변경할 수도 있겠다. 영화감독 다음 직업으로 생각해둔 것이 있나?

이: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긴 하다. 그렇지만 또 바뀔지도 모르겠다.(웃음) 개인적으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회가 되면 초등학교 축구감독이 돼 보고 싶다.

최무성 씨는 어떤 계기로 연기를 시작하게 됐나?

최: 어릴 때부터 영화 보는 걸 좋아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미국영화들, <주말의 명화> 같은 프로그램을 즐겨봤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극반에 들어가게 됐고, 연기를 시작했다. 연극배우가 되어 연기를 하다가 연극 연출도 하게 됐고, 또 기회가 되어 영화 연기도 하게 된 것이다.

배우는 감독과 달리 선택하기보다 선택을 당하는 입장이다. 만약 선택하는 입장이 되어 시나리오와 캐릭터를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장르, 어떤 캐릭터를 연기해 보고 싶나?

최: 사실 <사람을 찾습니다>처럼 인간의 복잡한 관계를 다루는 영화, 그 안에서 뒤틀려진 인간을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좋아한다.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말랑말랑한 캐릭터 가지고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어딘가 한 군데는 좀 틀어지거나 부서지는 맛이 있는 캐릭터가 좋다. 그런 긴장감이 없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특정 장르나 연기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보면 별로 없다.

신기하다. 보통의 배우들은 연기해 보고 싶은 장르나 캐릭터를 질문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던데.

최: 딱 국한해서 이런 역할이 좋다고 말하기보다 시나리오가 좋고 캐릭터에 생동감과 진실함이 있으면 된다. 굳이 고르라면 늘어져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무위도식 하는 백수

역을 한 번 해보고 싶다. 한 번도 그런 역을 맡은 적이 없다.(웃음)

이: 실제로 본인이 그런 모습이지 않나?

최: 그렇다. 딱 겨울의 내 모습이다.(웃음)

<사람을 찾습니다> 이후 최무성 씨의 차기작은 무엇인가?

최: 김대우 감독의 <방자전>과 엄정화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베스트셀러>에 출연했다. <방자전>에선 방자의 조력자인 ‘광천’으로 나온다. <베스트셀러>에서는 주인공 엄정화 씨를 괴롭히는 중년 남자로 출연한다.

이서 감독의 경우 지난 11월에 단편영화를 하나 더 찍었다고 들었다. 어떤 작품인가?

이: 인디밴드가 보물을 찾기 위해서 내려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보물섬>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일종의 성장 드라마다. 30분 분량으로 찍었다.

그동안 연출한 작품들은 주로 어두운 작품이 많았는데, 이번엔 좀 밝아진 것 같다.

최: 백수 몇 명 모아놓고 하는 영화 아닌가? 내가 그런 역엔 딱인데.(웃음)

이: 너무 어두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를 들어서 한 번 새롭게 준비해본 작품이다. 굳이 장르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어떤 장르나 소재도 가리고 싶지 않다. 그보다는 관객들과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영화는 혼자 골방에 치박혀 보려고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더 관객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

새로운 단편은 이제 각종 영화제에서 볼 수 있겠다.

이: 그랬으면 좋겠다.(웃음)

최: 이 감독이 독립영화 감독으로서 예술적인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없이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작품이다. 그게 내가 볼 때는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다.

<사람을 찾습니다> 역시 지루함 없이 계속 다음 장면이 궁금해지는 영화였다.

이: 90분짜리 영화를 60분처럼 느끼게 하는 게 내 목표였다. <사람을 찾습니다>를 보신 분들이 그렇게 느껴졌다고 많이 말씀해주셔서 1차적인 목표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최: 무거운 주제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한 것 같다. 원래 이런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말이다.(웃음)

진행_김수연, 권해정 기자
정리_김수연 기자 | 사진_김신태

어딘가 한군데는 좀 틀어지거나 부서지는 맛이 있는 캐릭터가 좋다. 그런 긴장감이 없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